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9월 8일(주일) 제1507호



사진은 지난해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24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Harve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9월 14~18일 국가별 집회, 이주민 500여 명 참석

2024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하비스트(Harvest)'가 오는 9월 14일(토)부터 18일(수)까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행 28:30-31)을 주제로 막 오른다. 올해 하비스트에서는 국가별 집회를 한다. 장소는 개별 공지한다.

2024 하비스트에는 페르시아, 러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몽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등지에서 온 이주민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하비스트를 위한 물품 후원을 받고 있다. 필요한 물품은 추석선물세트, 텀블러, 간식 등이다. 후원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9월 17일(화)까지 온누리 M센터(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로 물품을 보내면 된다.

하비스트는 이주민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이주민 공동체 연합예배다. 고국을 떠난 이주민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와

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됐다.

최영조 선교사(온누리M센터)는 "많은 이주민이 명절에 고국에 남겨진 가족을 그리워하고, 홀로 시간을 보내면서 외로워한다"면서 "하비스트를 통해서 이주민들이 먼 땅에서 외롭게 명절을 보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날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문의: 010-5858-4371

후원: 하나은행 573-810031-74605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 홍혜영 기자 hha0@onnuri.org

한국 교회 긴급성명서 발표

'교원임용권 회복' 및 '신앙적 교육권 보장' 촉구
9월 11일 오전 10시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관

(사)한국교회총연합회와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에서 기독교학교의 '교원임용권 회복' 및 '신앙적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 교회 긴급성명서'를 9월 11일 오전 10시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관에서 발표한다. 이번 긴급성명서 발표를 통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개정] 및 [2025 고교학점제 수정] 등 기독교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정훈 의원(22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영선 이사장(기독교학교연합회),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오정호 목사(한교총 공동대표),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사학미션 이사장),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사학미션 이사), 김은호 목사(요원교회, 사학미션 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교회 대표단', '기독교사학 대표단', '기독교 학부모 대표단' 등 1천 여 명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 온누리교회 당회원 및 성도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참석할 것을 당부한다. 참가신청은 QR코드로 하면 된다.



(참가신청 QR)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D-14!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이하 제4차 로잔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9월 22일(일)부터 28일(토)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를 주제로 막 오른다.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한 '참가자 한 끼 후원 및 매일 기도'가 9월 28일까지 이어진다. 동참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제4차 로잔대회 홈페이지(lausanne.kr)나 아노키(Anoki) 기도 앱에 올라오는 '매일 합심 기도문'을 보고 중보기도하면 된다. '한 끼 후원'에 동참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제4차 로잔대회 홈페이지에서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민은행 231401-04-303854(사단법인 한국로잔)으로 한 끼 식사 비용(2만 원)을 보내면 된다.

제4차 로잔대회 기간(23-27일)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는 로잔대회와 한국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회가 이어진다. 개인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전화(070-4940-4242)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온누리교회 창립 21주년

대전온누리교회 창립 21주년 감사예배를 9월 8일(일) 오전 11시 30분 6층 본당에서 드린다. 이재훈 위임목사 축하 인사, 케이크 커팅식 등이 이어진다. 예배 후에는 성도들에게 창립 기념 떡을 선물한다.

김상수 목사(대전온누리교회 담당)는 "대전온누리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관련 기사 13면).

대전온누리교회는 2003년 9월 7일 '살아있는 예배, 아웃리치, 행복한 가정'을 슬로건으로 내걸로 국내 3번째 캠퍼스로 창립했다.

공동체 성경읽기, JSU 북클럽 개강

공동체 성경읽기와 'JSU 북클럽' (Just Show Up Book Club)이 오는 9월 13일(금) 개강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믿음홀(신동아쇼핑센터 2층)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공동체 성경읽기에서는 변대섭 목사가 당일 읽을 본문의 말씀을 소개한 다음, 시편-구약-신약-시편으로 구성된 오디오 성경을 약 40분 동안 듣고 읽는다. JSU 북클럽에서는 엄선된 신앙 고전을 오디오북으로 함께 들으면서 읽고, 소그룹 나눔을 한다. 문의: 02-3215-3239(공동체본부)

2024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9월 29일까지 나눔 대상자 접수 및 순, 개인별 헌금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성경책과 쌀을 전달하는 2024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이하 사르밧 프로젝트)가 한창이다. 순에서 나눔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있고, 이웃사랑팀은 이웃들에게 보낼 쌀과 성경책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사르밧 프로젝트는 한동대학교 졸업생들이 창업한 소셜벤처(Social Venture, 사회적기업)와 협업한다. 한동대 소셜벤처에서 친환경 무농약 쌀 한 포대(20kg)와 함께 성경책을 보급할 예정이다.

사르밧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순과 개인은 9월 29일(주일)까지 쌀 20kg 한 포대 가격(6만5천 원)을 기준으로 형편에 맞게 헌금하면 된다. 헌금은 각 캠퍼스 송금 계좌로 봉헌하면 된다. 송금 계좌는 서빙고 '하나은행 573-910019-14805', 양재 '하나은행 573-910021-35705'이다.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순에서 헌금을 입금할 때는 공동체, 다락방, 순 이름을 꼭 기록해야 한다(예: 한강마리아2순). 개인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헌금을 송금할 때 이름, 생년월일을 기록해야 한다(예: 홍길동 850128). 개인 참여는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다.

사르밧 프로젝트 나눔 대상자 접수는 9월 29일(주일)까지 하면된다. 1순위 온누리교회 공동체 소속 성도, 2순위 외부 기관, 3순위 외부 개인 순으로 선정한다. 나눔 대상자를 접수할 때는 반드시 공동체 담당 목사와 대표 장로의 확인을 거친 다음, 공동체를 통해서 이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이메일을 발송할 때는 공동체 담당 목사와 대표 장로를 참조인

으로 설정해야 한다. 공동체 이름과 공동체 담당 목사, 대표 장로 승인 여부도 밝혀야 한다(예: 중종로공동체 노치형 목사님과 이상도 대표 장로님께 승인 받음). 사르밧 프로젝트 신청서는 서빙고와 양재는 이메일(서빙고: 24thanksgiving@naver.com, 양재: dbsansdbs@onnuri.org),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성도들이 봉헌한 헌금으로 구매할 쌀과 성경책은 10월 30일(수)부터 나눔 대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할 예정이다. 서빙고와 양재를 제외한 다른 캠퍼스에서는 상황에 맞춰 나눔 대상자에게 전달해도 된다. 쌀 발송을 원하는 캠퍼스는 10월 6일(일)까지 대상자 리스트를 취합해서 서빙고온누리교회 수신처로 접수하고, 계좌로 금액을 이체하면 된다.

문의: 02-3215-3434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끊임없이 던져야 할 질문은 “그 시대의 교회가 속한 사회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가?”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함께 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를 세상에 보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친밀함을 가지는 데는 충실하지만,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된다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의해 교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친밀함보다 중요한 것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서 변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한때 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세교회입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중세교회를 ‘암흑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치적 권력을 이용한 교회는 결실을 맺은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부분 교회가 본래 사역에서 멀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부패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상의 권력을 주겠다는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신 것은 이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 세상의 우상을 무너뜨림으로써 일어납니다. 세상 문화의 중심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으로만 무너집니다. 세상의 우상은 결코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며 일어난 회개의 소동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복음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 소동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에베소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림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우상이 무너지며 회개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마술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비즈니스로 알고 섬겼던 우상이 무너지면서 회개하고, 마술책을 불태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 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 있게 퍼져 나갔습니다(17~20절).

5만 드라크마, 즉 5만 명의 하루 품삯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재산의 가치가 한순간에 불태워질 만큼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이 헛된 것임을 알고, 그 우상이 무너짐으로써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합해져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거짓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일어난 소동

두 번째 소동은 돈을 우상으로 여기던 이들이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하게 된 것을 거부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인하여 우상이 깨어지고 무너지며 그들의 거짓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일어난 소동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에서 우상들을 분별했고, 드러냈고, 무너뜨렸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우상을 드러냈습니까? 그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의 입으로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행 19:26).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아테네든, 에베소든 엄청난 신전을 만들고,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며, 없는 신을 만들어서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던 사회에 이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바울이 지혜로운 것은 어떤 신의 이름을 거명함으로써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당신들은 종교성이 많다”고 관계를 형성하는 말을 한 다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붙여진 그 이름을 이용해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군요.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 신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변증하며 그들의 생각에 침투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아데미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여왕’이라고 하는 아데미 신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돌봐준다고 믿어서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크다고 합

니다. 그리스 문명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전을 비즈니스화했고, 아데미 신전이 아시아 지역의 은행 역할을 할 정도로 경제활동 중심지로 여겨지는 사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데미 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공격을 받아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십시오. 바울이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데미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고 믿으니까 흥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데미 신전도 자신들이 만들었고,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 있던 아데미 신의 모형도 자신들이 만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조각해서 만든 조각상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전한 것입니다. 근본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사람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는 그 시대 사람이 만든 우상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상과 신전 등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신상에 절하는 사람은 적은 무리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원천 하나님 버리고,
인간이 스스로 만든 ‘우상’

〈예레미야〉 2장 11~1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우상숭배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어떤 민족이 자기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우상들과 바꾸었다. 하늘아, 이것으로 인해 소스라치게 놀라라. 몹시 두려워해 황폐해지라. 여호와 의 말이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렘 2:11~13).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을 의지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남으로는 이집트, 북으로는 앗시리아,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이 마치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처럼 의지하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은 믿지 않으면서 주변 나라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과 외교적 관계를 단절하라는



“우상을 붙잡고 있는 인생은 우상과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복음으로 내 안의 우상을 무너뜨린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그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는 영역을 이웃나라들이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신이 아닌 것과 하나님을 바꾸었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이 저장되지 못할 터진 저장소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상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 얻으려고 인간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삶의 중심이 되어서 만일 그것을 잃어버릴 때 삶의 의미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절망이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신성을 부여합니다. 조각상을 만들고, 그 조각상이 자신의 소원을 해결해 주고, 필요를 채워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일 뿐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서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있게 하지 말라”입니다. 우상을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계명의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이 어겨지는 이유는 1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계명을 어기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어겨지는 것입니다. 만일 1계명을 반드시 지키면 그 다음 계명들을 어기지 않게 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있게 하지 말라.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는 진리를 굳게 붙잡아

야 합니다.

거짓과 악을 기초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우상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붙잡고 무너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소동을 주도한 사람이 ‘데메드리오’입니다.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아 엄청난 수입을 얻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자 자신의 수입이 주니까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 중에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스를 붙잡아 에베소의 원형 극장, 대략 2만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고, 지금도 그 형태가 남아 있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군중심리로 끌려갔습니다.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매우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32절).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 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

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 높였습니다”(25~28절).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거기에는 진짜 아데미 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서 외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수입이 줄어들자 화가 나서 외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데미 신을 높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신전의 명예를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거짓된 변명입니다. 포장입니다. 아데미 신전을 바울이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진리가 전해짐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준 것입니다. 거짓과 악을 기초로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일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탄의 영역을 침략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때로 물리적인 소동도 일어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두려운 현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는 악의 세력과 싸우는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고, 사회 속에 있는 우상이 무너질 때 마술책이 불타는 것 같은 회개의 영향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에 반항하는 소동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상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악령은 성령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아무리 소동을 일으켜도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의 소동은 시청 서기관이 나와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소란을 피울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법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해서 소동이 해결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이 소동은 어떻게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우상이 무너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1907년 ‘평양대부흥’의 역사는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대화, 현대화될 수 있는 영적 기초가 된 것입니다.

복음은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으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안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얻으려고 만든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직업, 사회, 문화의 중심에 있는 우상을 나도 함께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없어질 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상을 붙잡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우상과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내 안의 우상을 무너뜨린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닙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로잔 기획 시리즈

로잔운동과 한국 교회

세계복음화운동이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



박용규 교수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1974년 '제1차로잔세계복음화대회'는 전 세계에 일종의 전환점을 제공했다. 그것은 단순히 '세계 선교'라는 차원에서만 아니라 '복음주의 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이라는 차원에서도 놀라

운 분기점을 제공했다. 1966년 베를린선교대회부터 1974년 1차 로잔대회, 1989년 2차 로잔대회, 그리고 2010년 3차 로잔대회까지 한국은 로잔운동의 최고의 수혜자였다. 동시에 세계 로잔운동에 한국은 기여자로 자리 잡았다. 로잔운동 50주년을 맞는 2024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는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로서는 최고의 축복이요,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평가받을 거라고 사료된다. 1966년 베를린선교대회부터 지금까지 빌리 그래함은 로잔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고, 1952년, 1973년, 1984년 계속해서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을 견인하는 중요한 중심축을 형성했다.

1966년, 베를린선교대회와 한국 교회

1966년 베를린대회는 과거 사회복음이 주장하고, 현대 에큐메니칼운동에서 지향하는 '하나님의 선교' 선교관에 맞서 전통적인 교회의 선교, 성경의 전도 개념을 재진술했다. 전도를 사회복음이나 하나님의 선교에서 찾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기초한 구원의 복음 선포에서 찾았다. 이 대회는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 가운데 사회적, 도덕적, 심리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밝혔다. 이 관점에서 베를린대회는 '전도' 개념을 전통적으로 정의하였다.

"복음 전도는 정죄받고 버려진 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며, 삶의 모든 소명과 그의 교회의 사귄 안에서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날을 대망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도록 할 목적으로, 성경에 따라 사람들의 유일한 구속 주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한경직 목사는 동양에서 유일하게 둔칸, 벨그란, 반지오니와 함께 베를린대회 강사로 초빙 받았다. <크리스천신문>은 대회 약 3개월 앞둔 1966년 8월 6일 1면에 '백림[베를린]세계복음전도협의회, 한경직 목사를 강사로 초빙'이란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비교적 무게 있게 보도했다.

"금년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일간



제1차 로잔세계복음화대회.

서독 '베를린'에서 '세계복음전도협의회'가 개최된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92개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금번 최대 규모의 복음전도협의회회는 '한 인류, 한 복음, 한 과업'이라는 주제를 제시하면서 '동과 서'로 분단된 베를린 장벽을 한 눈으로 내다보이는 자리에 대표자를 포함하여 방청객, 특파원 모두 1천 명이 넘는 수가 이 회의 초대된다. 공식 통용어는 영어, 불어, 독어, 서반어이며, 3백 종이 넘는 많은 과제를 이 기간에 다루게 된다. 특별 초청 강사에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강한 신앙의 역적 지도자며 박력가인 4인 목사들이다. 이들은 독일의 벨그만 목사, 스코틀랜드[스코틀랜드]의 골칸 목사, 한국의 한경직 목사, 알젠틴[아르헨티나]의 반지오니 목사다. 특히 한국의 한경직 목사는 동양에서는 단 한 사람으로 세계적인 역적 지도자로 추대된 것이다. 이 회의 동안 주제 찬송 '이 세대의 환상'은 '동서'로 양단된 베를린 장벽에 메아리칠 것이다."¹⁾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당시 연대 교목 김덕열은 1966년 12월 10일 <크리스천신문>에 실린 '백림세계복음화대회와 한국 교회의 자세'라는 글에서 당시 한국 교회가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²⁾ 그는 해방 후 계속된 교회 분열, 신학적 혼란, 준비 없이 한국 교회가 받아들이는 '세계의 온갖 단체와 운동 그리고 사조들과 유행들'에서 요인을 찾았다.³⁾ 김덕열은 1966년 베를린선교대회는 영적 위기에 직면한 세계 교회가 다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세계복음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진단했다.

"성서에 기록된 대로 오늘날 교회가 맡은 직책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족속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다. 이러한 직책은 개인적인 힘으로만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으니 다만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다. 해골 골짜기의 뼈들을 소생시켜 다시 하나님의 군대를 삼으시듯이 자신을 잃은 교회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수행케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⁴⁾

김덕열은 한국교회가 베를린대회에서 배워야 할 '복음전도의 원리와 방안'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1. 성서에 제시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2. 지성인과 대학생 및 자라는 세대를 향한 강력한 복음화 운동, 3. 도시전도, 4. 사회복지, 5. 매스커뮤니케이션 동원, 6. 평신도의 훈련이 그것이다.⁵⁾ 자신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에 대한 답을 1966년 베를린선교대회서 찾은 것이다.

사실 베를린대회는 한경직, 김준곤, 김환란, 조동진을 비롯한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에게 한국 교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⁶⁾ 베를린대회는 민족 복음화를 자신들의 소중한 책무로 가슴에 품고 있던 한국복음주의 지도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한경직은 베를린대회에서 물고기 전략을 배워와 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한다고 확신하고 군복음화, 학원선교, 산업선교에 전념했다. 베를린대회에 참석한 조종남은 복음주의 정체성과 교회에 대한 복음주의 신학 정립의 필요성을 깊이 절감했다. 무엇보다 신학자는 동시에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필자로서는 이 대회[베를린대회]가 세계복음주의 국제 대회에 참석케 되는 시작이었으며 복음주의적 교회의 강하고 생생한 존재를 인식하며 용기를 얻는 귀한 기회였다. 이 대회에서 자신에게 그리고 교회에 요청되는 것은 전도자에게 신학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신학

자는 동시에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한 깨달음을 주었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 있는 전도의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있어서 보다 과감하고도 진취적이어야 한다는 도전을 받았다."⁷⁾

그런 왜커가 지적인 대로 그래함과 베를린회의 참석자들은 교단의 차이는 제쳐두고 뜻이 맞는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회의 참석자 1,200명 중 미국인은 200명뿐이었지만 거의 모든 참가자는 고등교육을 받은 백인 남성이었으므로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 관계 형성이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이다.⁸⁾

훗날 조종남은 1966년 베를린 대회의 의미를 이렇게 평가했다.

"1966년 서베를린에서 모였던 세계전도대회는 이런 면에서 크게 성공을 했다고 본다. 100개 나라에서 약 1,200명의 복음주의자들이 모였다. 한국에서도 한경직 목사님을 위시하여 7~8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대회는 발전되어 가는 세대 속에서 변치 않는 복음을 확인하며 우리에게 한 인증, 한 복음, 하나의 과제인 곧 전도가 있을 뿐이라고 전도의 사명을 강조하며 전도에 진력할 것을 다짐하는 회의였다."

그래함은 기독교의 중심이 서구에서 남동부로 이동하였다고 언급하였는데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큰 격려와 도전이 되었을 것이다. 베를린대회 이후 전 세계에 큰 규모의 국제적인 복음전도대회가 열렸다. 1966년 한국의 전국복음화대회, 196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전도대회, 1969년 남아메리카의 보고타전도대회, 1970년 프랑크푸르트대회, 1973년 시카고대회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74년, 제1차 로잔운동과 한국 교회

1974년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동안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로잔대회에 전 세계 150개국에서 온 약 2,700명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세계복음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존 스토틀가 초안한 <로잔언약>을 채택했다. 1차 로잔대회는 기독교의 중심축이 유럽과 북미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로 옮겨지는 중요한 전기를 제공해주었다.⁹⁾ 최고의 수혜자는 대한민국 대표들과 한국 교회였다. 한경직, 김준곤, 조동진, 조종남을 비롯한 로잔대회에 참석한 65명의 한국 대표들은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빌리 그래함 한국전도대회를 통해 깊이 고무된 상황에서 참석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 대표들보다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에 대한 열기가 강했다.

제1차 로잔대회를 참석하고 돌아온 한국 대표 중 상당수가 약 2주 후에 8월 12일부터 18

일까지 진행된 ‘엑스플로 74’의 주역들로 활동했다. 의식 있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민족복음화를 이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민족복음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한경직은 1974년 8월에 주일강단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쓰실만한 새 그릇, 새 민족이 불원간 될 것”¹⁰⁾이라고 설교했다.

“지난달에 서서(스위스)의 로잔에서 세계 제 2회 복음화대회가 열렸습니다. ... 나는 작년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를 보았습니다. 또한 금년 여름에 열린 15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엑스플로 74대회’를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그릇과 같은 우리 민족을 주물러 새로운, 하나님이 쓰실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역사는 이미 절반 정도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이 고통의 도가니 속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시작하였고, 그리고 이 운동이 계속되면 우리 민족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쓰실만한 새 그릇, 새 민족이 불원간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5년 후 1979년 김준곤도 “한국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유사한 의견을 남겼다.¹¹⁾

1974년 로잔운동은 1973년 빌리 그래함 서울전도대회부터 1984년 한국선교 100주년 대회에 이르는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을 더욱 더 저변 확대시키는 결정적인 분기점을 제공했다.¹²⁾ 1966년 베를린선교대회와 1974년 로잔대회를 기점으로 한경직, 김준곤, 홍현설, 김활란, 조동진, 조종남을 비롯한 한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 추진한 전국복음화운동과 성시화운동이 하나의 민족복음화운동으로 발전한 것이 바로 1973년 빌리 그래함 한국전도대회와 1974년 엑스플로 74였다.

이후 한국 교회는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 시대를 활짝 열었다. 1973년 빌리 그래함 한국전도대회 기간 여의도에 1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전국의 3천만 한국 사람들이 지켜봤고, 기독교 언론은 물론이고 일반 언론까지 연일 대서특필하며 보도했다. 한국의 기독교가 당시 전체 국민적 관심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¹³⁾ 이전에도 한국의 기독교가 주목을 받았지만 이렇게 한국인들 전체의 주목을 받은 일은 없었다.

1973년 빌리 그래함 서울전도대회는 비록 외국의 부흥지도자를 초청하여 진행한 집회였지만 민족복음화운동의 기치를 내걸고 1960년대 시작된 민족복음화운동의 일환으로 열린 전도대회였다. 엑스플로 74 사건의 놀라운 성공은 1973년 빌리 그래함 서울전도대회의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두 대중전도운동의 성공은 1977년 민족복음대회대성회의 성공으로 이어졌고, 다시 한국 교회 안에 세계선교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1980년 세계복음화대성회의 성공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이런 한국 교회의 연합과 결집에 힘입어 1984년 한국 교회는 교파와 교단과 이념을 초월하여 한국선교 100주년기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1974년 엑스플로 74는 1973년 빌리 그래함 서울전도대회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1900~1910년으로 특징되는 ‘평양대부흥운

동’에 이어 한국 교회는 천막만 세워도 부흥하는 1960~1988년으로 특징되는 제2의 부흥기를 맞았다. 이와 같은 대중전도운동의 놀라운 성공은 대중전도운동이라는 차원을 넘어 한국 교회의 발전과 해외 선교로 이어졌고, 한국 교회는 민족의 종교로 거듭나는 듯했다. 확실히 1970년대와 1980년에 진행된 대중전도운동은 한국 교계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기독교의 가능성을 국내외에 확인한 사건이었다.

1974년, 로잔대회와 한국복음주의운동

1973년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와 1974년 제1차 로잔세계복음화대회의 가장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눈에 띄는 수혜자는 한국 교회였다. 1960년에서 1988년까지로 특징되는 민족복음화운동은 한국복음주의운동의 발흥과 발전을 촉진시켰고, 한국복음주의운동은 민족복음화운동의 사상적 토대를 구축해주었다.¹⁴⁾ 당시 로잔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된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던 복음주의운동은 한국의 민족복음화운동이 설득력 있는 하나의 전국적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을 형성했다.

한경직, 김준곤, 조종남, 조동진을 비롯한 한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한국 대표로 빌리 그래함이 중심이 되어 세계복음주의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1966년 베를린선교대회부터 1974년 로잔세계복음화대회에 이르기까지 세

한경직, 김준곤, 조종남을 비롯한 국내의 유수한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함께 로잔대회에 깊이 관여했고, 그 정신을 그대로 계승했고 한국에 소개했으며, 그 세계적 복음주의운동의 흐름 속에서 호흡하면서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엑스플로 74는 민족복음화운동의 일환으로 열린 것이지만, 1974년 로잔운동과 연관성은 물론 1972년 달라스에서 열린 미국 CCC의 엑스플로 72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된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만의 독자적인 대회가 아니라 국제복음주의 대회와의 연계성 속에서 진행된 것이다.¹⁶⁾ 엑스플로 74의 훈련교재는 물론 대회 주제, 목적, 방향성도 1972년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열린 엑스플로 72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도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¹⁷⁾ 엑스플로 72는 미국복음주의운동의 거장 미국 CCC 대표 빌 브라이트가 빌리 그래함과 손을 잡고 진행된 미국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전도대회였다.

1966년 베를린대회 주역 중 한 명이었던 칼 헨리를 비롯하여 15명의 엑스플로 74의 국제 발기위원들 모두가 당시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복음주의운동의 지도자들이었다.¹⁸⁾ 대중전도운동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운집한 ‘80 세계복음화대성회’도 미국 CCC의 ‘나는 찾았네’ 전도대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착수한 것이다. 이처럼 세계복음주의운동의 한국 측 축을 형성한 한경직과 김준곤이 세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에 큰 빛을 쬔고, 그 빛을 감당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

계선교대회에 참여하면서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을 착안하고 준비하고 개최하였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1966년 베를린선교대회와 전국복음화대회, 1974년에 로잔대회와 엑스플로 74의 관련성이다.

특히 한경직은 베를린대회 강사로 참석했고, 그곳에서 물고기 전도전략을 배워와 한국의 군선교, 학원선교, 산업선교에 전략적으로 집중해 놀라운 결실을 맺은 것은 널리 알려진 일화이다. 1974년 로잔운동과 한국 교회 민족복음화운동과의 연관성은 너무도 분명하다. 1974년 8월에 5.16광장에서 열린 엑스플로 74 때 섬긴 주요 강사들은 1974년 7월 스위스 로잔 세계복음화전도대회의 주요강사들이었다. 김준곤의 표현을 빌린다면 “1974년 7월 16~24일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3,500명의 세계복음화전도대회 주요 강사들이 그대로 EXPLOR 74에 초청”¹⁵⁾된 것이다. 엑스플로 74만 아니라 1973년 빌리 그래함 한국전도대회부터 1984년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대회에 이르기까지 초청된 외국 강사들은 모두가 복음주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 모두가 빌리 그래함이나 로잔운동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엑스플로 74년 빌 브라이트 미국 CCC의 엑스플로 72와 74 로잔 세계복음화대회의 연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민족복음화운동과 세계복음주의운동의 연계성은 너무도 분명해진다.

삼 등)가 설립된 것도 바로 그 즈음이었다. 한기총은 KNCC와 다른 노선에서 복음주의 노선의 한국 교회를 결집시키고, 건강한 통일관을 제시하고, 신학적으로도 복음주의 노선에 분명하게 서면서 적어도 2010년 초까지 한국 복음주의 교회들과 교단들의 연합기관으로 굳게 자리 잡았다.²⁰⁾ 복음주의 노선의 신생대학들, 신학교, 출판사들이 대거 등장한 것도 이 시대였다.

한국 교회가 사는 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

1966년 베를린대회와 1974년 이후 진행된 로잔운동은 한국 교회 민족복음화운동, 복음주의운동, 해외선교운동이 하나의 강력한 세력으로 역사에 부상할 수 있도록 중요한 배경과 전환점을 제공했다.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분명한 기치를 내걸며 진행된 로잔운동은 한편으로 한국 교회로 하여금 복음전도와 해외 선교를 지속하도록 도전을 주었고, 다른 한편으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대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도록 끊임없이 자극을 주었다.

한경직, 김준곤, 조종남, 조동진을 비롯한 한국복음주의 지도자들은 베를린대회와 로잔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면서 세계 교회 복음주의운동과 세계복음화운동의 흐름을 접하게 되었고, 거기서 논의되어 온 방법론과 신학을 한국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1973년 빌리 그래함 한국전도대회, 1974년 엑스플로 74, 1980년 세계복음화 대성회 3번에 걸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대중이 모인 전도대회가 한국에서 열렸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고, 한국은 이를 계기로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부르심과 복음주의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복음의 대사회적 책무를 감당하기 시작했다. 한국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계속했고,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대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지난 1966년 베를린대회 이후 반세기가 넘게 진행된 로잔운동에서 한국 교회는 가장 큰 수혜자인 동시에 가장 큰 기여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1974년 제1차 로잔운동 정확히 50주년을 맞는 2024년 올해 한국에서 제4차 로잔대회가 열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있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기회에 다시 일어나고, 세계 교회를 향한 책무를 감당하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4년 9월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는 한국 교회가 아시아와 세계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마치 1974년 제1차 로잔대회가 한국 교회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의 기폭제가된 것처럼, 침체된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 민족을 깨우고, 통일을 앞당기고,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에 너무도 큰 빛을 쬔고, 여전히 그 빛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

* 지면 관계상 각주는 QR코드로 제시해 두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영적 전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R. C. 스프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에서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벌이는 영적 전쟁을 ‘가공할 적들인 세상, 육체, 마귀와의 전투’라고 설명한다. 여기서는 세상과의 전투인 세계관 전쟁을 성경을 기준으로 바로 보고자 한다. 우리는 기존에 습득된 인본주의적 생각과 성경적 세계관이 뒤섞인 가운데 갈등하는 순간을 만난다. 믿는다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서 그 위에 성경적 지식만 쌓아 올린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을 따르는 적당히 이중적 삶을 살게 된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 믿음의 전진을 위해 두 팔로 안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 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를 ‘포스트모더니즘(개인주의) 사회’라고 한다. 중세 유럽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했고, 근대(인본주의+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이 중요했다. 포스트모던 시대인 지금은 ‘나의 주관과 느낌’이 중요하다. 그 어떤 것도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옳을 수도 있다는 열린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러한 상대적인 태도로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할 때 인류는 더욱 다양하고 풍요로운 사회,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절대적인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주장한다.

올로(YOLO, You Only Live Once)족은 ‘인

생은 한 번뿐이니 현재를 충분히 즐기라’는 삶의 방식을 권면한다. 올로족의 소비행태인 ‘탕진잼’(소소하게 탕진하는 재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니체(Nietzsche)적 세계관을 계승한 포스트모더니즘을 잘 표현한 말이 “너 자신을 사랑하라”다. 다른 사람이 강요한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지금, 이 순간 너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말한다. 이 매력적인 메시지는 자기혐오와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도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곧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데서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사랑을 넘어 이웃과 사회 공동체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롬 12:2).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을 쌓기에는 열심이지만, 세상의 주도적, 지배적 시대 정신인 세속적 인본주의, 자유주의, 성문화혁명(차별

금지법)이 가져올 가정과 교회의 파괴 등 세상을 아는 지식은 매우 부족하다. 앞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시켜야 하는지 기록한 고민이 밀려온다.

성경은 인간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악의 근원이 ‘죄’라고 말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절대적인 도덕 규범을 주셨다. 성경은 인간사회의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창세기> 3장의

회복, 그 이후 순종과 성화에서 찾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와 젠더리즘을 이슈화하고 있다. 특히 차별금지법 등을 통과시켜 국가 차원에서 동성애와 젠더리즘을 옹호 조장하려고 한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명확하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차별금지법 등에서 말하는 분류할 수 없는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성적인 결합만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기준이 맘에 안 들어 스스로 성 정체성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내가 선택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슨 ‘죄’냐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금지하셨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규례를 주신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믿어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그것이 곧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하다.



윤상우 집사
(강남D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특별기고

다음세대에 용기를 길러주는 법

올해 콜슨 센터 내셔널 콘퍼런스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용기 있는 신앙’을 키우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다뤘다. 용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용기는 미덕이며, 미덕은 근육과 같다. 용기는 ‘운동’을 통해 개발해야 한다. 유명 작가이자 강사인 ‘셀러브레이트 키즈’ 단체의 설립자 캐시 코크 박사는 부모가 자녀에게 기독교적 용기를 길러 주는 방법을 설명했다. 코크 박사는 기독교적 용기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진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어떻게 그 승리를 누리는 ‘내’가 될 수 있을까?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용기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용기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것이다. 용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지식을 따라 행동하는 데 달려 있다.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는지도 중요하다.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도 중요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영향을 주면서 살

아가기를 바란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곳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향한 용기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요구한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용기에는 격려가 필요하다. ‘격려(encouragement)’의 간단한 정의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 ‘격려하다(encourage)’를 적어보면 용기(courage)가 핵심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어린이와 어른, 사랑하는 사람과 완전히 낯선 사람을 격려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용기를 준다. 반면 ‘낙담(disourage)’은 다른 사람의 용기를 빼앗는다는 뜻이다. 이 문화적 순간에 아이들을 격려하는 것은 용기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르치고, 지도하고, 응원하고, 심판도 해야 한다. 아이들이 용기가 무엇이고, 무엇이 용기가 아닌지, 왜 용기가 가치가 있는지, 언제 어디서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용기를 발휘해야 하는지 등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란다. 우리와 우리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아이

들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큰 집단이나 작은 집단에서 지쳐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놀림과 괴롭힘을 당할 때나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전한 때, 그 어느 때라도 일관되게 용기를 내기 바란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용기를 갖게 되기를 원한다. “오늘은 용기를 내야 해”라고 항상 상기시켜 주고 싶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완전하고 꾸준하게, 언제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용기를 가지려면 정체성이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완전한 용기, 끈질긴 용기, 자연스럽게 나오는 용기가 우리의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용기는 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일까? 성경이 좋은 예다. 성경은 용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사무엘상> 17장 58절에 기록되어 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였다. 사울 왕은 얼마든지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벤햄 형제(데이비드와 제이슨 벤햄은 코크 박사의 신간 <다르게 양육하라(Parent Differently)>의 저자)의 글처럼, 사울은 다윗에게서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보지 못한 무언가를 보았다. 사울 왕은 용기를 보았다. 힘을 보았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하는 한 청년을 보았다. 사울은 그 경외감의 순간에 수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었지만, 한 가지 간단한 질문만 던졌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

“누가 너를 이렇게 용맹한 용사로 키웠느냐?”고 묻는 것이다. 사울의 질문은 다윗처럼 오늘날의 골리앗에 맞설 세대를 키우는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다윗의 아버지가 그의 세대에서 할 수 있었다면, 우리 세대에서도 할 수 있다.”

/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브레이크포인트 진행), 자렛 헤이든(콜슨 센터 브레이크포인트 기자 종교학 석사(前)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 원문: breakpoint(20240822)

사회선교본부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시니어사역, 부르심이자 사명!”

6070세대의 새로운 역할과 미래 만드는 ‘원더풀라이프’

심길섭 장로
(원더풀라이프사역팀)

원더풀라이프는 6070세대가 믿음과 지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원더풀라이프의 비전은 세 가지다.

“자신의 인생을 믿음과 지혜로 돌아보고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는다”(Self-reflection).

“자신의 은사와 전문성을 활용해서 섬길 수 있는 분야를 발견한다”(Self-development).

“지속적인 사역으로 자신의 가치를 키우고, 새로운 친구 관계를 세워간다”(Friendship).

원더풀라이프는 바로 이 세 가지 비전을 사명 삼고 시니어 성도들이 건강하고 보람찬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도록 돕고 있다.

고령화되는 한국 교회

의료와 과학기술의 발달이 삶의 여건과 환경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 건강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사망률은 저하되고, 평균수명이 많이 높아졌다. 이미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19.5%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된다. 교회의 만 65세 이상 된 성도 비중은 사회보다 훨씬 높다. 교회의 시니어



어사역은 시작을 고민할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할 시점이다.

온누리교회만 해도 65세에서 90세까지 성도가 2만여 명이나 된다. 교회 내 고령화가 점점 가속화하고 있다. 나이 들어가는 성도들이 사회에서 은퇴하고, 교회에서도 은퇴해야 한다. 그들은 한때 시대의 주역으로 나라의 발전과 교회 성장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고 더는 설 곳이 없다.

개인의 삶에서 노년의 시기가 길어지고 있다. 6070세대는 건강과 열정이 있고, 시간과 몸, 물질을 드려 섬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다. 그들의 믿음과 지혜, 경험과 달란트가 시스템에 묶여 사용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다. 교회는 시니어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들이 그냥 나이 들게 해서 안 된다. 부르심의 사명을 살아낼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해서 영적 라이프 사이클을 연장해야 한다.

빠른 고령화로 인구 변화의 속도가 모든 사

회와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노년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너무 빠른 고령화 속도로 초고령사회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IT기술과 AI 인공지능의 발전, 저출생 문제, 가족 구조 변화 등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응에 취약한 시니어 세대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경제, 사회제도, 문화 적응과 대안을 마련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시니어 성도들의 친구 ‘원더풀라이프’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에서는 올해부터 노년 초기 단계 사역팀 ‘원더풀라이프’를 개설했다. 지난 3월 올해 105세 되신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형석 명예교수님 초청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월 ‘원데이클래스’를 개설해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쉽고 힐링이 있는 만남과 하나님의 부

르심을 회복하고, 원더풀라이프를 살기를 소망하고 있다. 소그룹 중심으로 활성화된 만남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 부르심이 넘치고, 시니어들이 새로운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있다.

“교회에 순모는 있는데 친구가 없다”는 젊은 권사님의 말은 교회에서 분주하게 시간과 몸을 드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외롭다는 의미다. 이제 시니어 성도들이 외롭지 않도록 교회와 함께 노후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친구 맺기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전문가 강의도 듣고, 필요에 맞는 공부도 하면서 말이다. 목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바탕으로 세대 간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있어야 한다. 교회는 시니어 성도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노년의 믿음과 지혜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활동적 욕구를 가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신(新)노년 세대를 구성하며 교회 시니어 성도로 준비되고 있다. 교회 고령화 정도에 따른 시니어 목회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령화될 것이다. 시니어사역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교회의 사명이다. 원더풀라이프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자 선물로 생각하고, 고령 친화적인 소그룹을 만들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시니어사역은 교회의 사소한 사역이 아니다. 결국에는 모든 성도가 시니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니어사역은 교회 모든 성도를 위한 사역이다. 시니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온전히 실천하기를 소망한다.

사역칼럼

정택영 팀장
(원더풀라이프사역팀)

사회가 고령화하면서 교회에도 노년 세대 성도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은퇴 연령대에 들어서도 스스로 교회 활동에 잘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면 특별히 갈 데가 없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교제가 없는 성도들도 많다. 원더풀라이프 사역팀은 노년 성도들을 위한 사역과 교제의 장(場)을 제공하고,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을 교회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내도록 섬기고 있다.

타 교회 탐방과 시니어사역 관련 외부 콘퍼런스 참석을 통해 이미 국내 많은 교회가 시니어사역을 목회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대안들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원더풀라이프사역팀에서도 온누리교회의 상황에 맞춰 사역의 방향을 정하고 사역을 시작했다. 지난 3월 김형석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 박종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6070세대 성도들을 대상으로 3주 동안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많은 성도가 참석해서 노년의 삶과 신앙생활에 새로운 다짐을 했고, 교회에 시니어사역의 중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은퇴 연령대 성도들을 위한 특별세미나 자리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피드백을 들었을 때 특히 감사했다.

원더풀라이프사역을 하면서 시니어 성도들의 관심과 희망 사항이 담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 “나이가 드니까 불러주는 데가 없다”, “사역팀에서 언제까지 활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역을 하고 싶는데 전문사역팀에 들어가서 풀타임으로 사역하기에는 체력 등이 부담된다”, “비슷한 연령대로 구성된 공감할 수 있는 친교 모임이 생겼으면 좋겠다”, “취미 여가

신앙에 은퇴는 없다!

를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등이 그것이다.

시니어 성도들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원더풀라이프에서는 시니어 성도들이 정기적 모임을 할 수 있는 교제의 장을 마련했다. 또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성도들의 관심 주제를 가지고 테마 특강 ‘원데이클래스’를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열고 있다. 상반기에 건강, 미술을 주제로 전문가를 초빙했고, 하반기에는 9월부터 새롭게 ‘비전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보다 다양한 주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전클래스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자리 잡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시니어 성도들을 위한 친교와 교제의 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를 바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평생을 쌓아온 시니어들의 다양한 경험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기쁨으로 베풀 수 있기를 바란다. 시니어 성도들의 여건에 맞는 사역의 자리까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원더풀라이프사역팀에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시

니어들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차근차근 실행하고자 한다.

신앙에 은퇴는 없다. 원더풀라이프사역팀은 다양한 경험과 신앙의 스펙트럼을 가진 6070세대 성도들을 품고, 그들의 행복한 제2의 인생을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매주 주일 스태프모임을 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간구하며 사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도 나누고 있다. 시니어 성도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교제의 즐거움과 사역의 기쁨을 누리다면, 그래서 자존감과 가치감이 높아진다면, 온누리교회가 더욱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다.

9월 비전클래스 ‘La Vie’
강사: 최정주 권사(아트앤뮤직큐레이터)
일시: 9월 21일(토) 오후 2시~4시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순형홀
회비: 5천 원
접수: 02-3215-3434, 3436

분당A공동체
몽골

분당A공동체가 지난 7월 18일(목)부터 21일(일)까지 몽골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몽골 아웃리치의 시작은 지난 3월 31일(일) 있었던 몽골 아웃리치 발대식이었다. 그런데 발대식 이후 몽골 아웃리치 팀원과 그 가정에 크고 작은 우환이 생겼다. 우리는 바로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다. 분당A공동체 협력기도와 금식기도도 하면서 몽골 아웃리치를 열심히 준비했다.

이번 몽골 아웃리치에서는 싱글맘과 자녀, 그 친구들을 섬기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로 했다. 격주로 모임을 하고, 선교사님과 온라인(Zoom) 회의, 썸(Sum) 연습, 몽골어 기초 학습 등을 열심히 했다.

드디어 아웃리치 당일이었다. 팀원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을 안고 몽골로 출발했다. 아웃리치가 순조롭게 진행되나 싶었는데 세관에서 팀원 3명이 짐을 조사받게 되었다. 그 안에는 어린이용 물품과 엄마용 물품, 약들이 가득 포장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기도로 미리 준비해서인지 갑자기 드리운 어둠의 구름을 하나님이 일거에 물리쳐 주셨다. 세관원이 “그냥 가도 좋다”고 했다. 우리는 몽골 아웃리치 시작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

어린이 사역은 최대 100명을 예상했는데, 50~60명 정도 참석했다. 하나님이 체력 약한 50~60대에게 맞는 적합한 인원을 배정해 주셨다. 여성사역은 싱글맘 대상으로 준비했



분당A공동체가 몽골 아웃리치에서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용 물품을 나눠주고 있다.

데, 싱글대디도 참석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싶으신 것 같았다. 하나님이 싱글대디와 그 자녀를 품으셨다. 한 싱글대디는 자녀에게 그동안 생일날 변변한 선물을 해주지 못했는데, 정성스럽게 만든 목걸이를 딸에게 생일선물로 걸어 주었다. 그 모습을 보는 우리도 마음이 몽글했다. 이번 몽골 아웃리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현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소망했다. 그 일환으로 현지인들에

게 최고의 K-Food(한식)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담당팀장님의 고백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담당팀장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딱 맞는 음식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다.

또 어린이 사역과 여성사역에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해서 점심 식사 비용이 줄었다. 프로그램마다 절약된 돈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버기 선교사님과 신축교회 인테리어를 위

해 헌금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마다 선포했던 말씀이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항상 선포하면서 기도했다. 그런데 새로 옮긴 교회에 진짜 새신자가 찾아왔다. 17세 아들이야자매였다. 이 자매가 처음 받아보는 사랑과 관심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몽골 땅에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었다.

잃어버린 자는 우리 팀 안에도 있었다. 이번 몽골 아웃리치에 직장동료를 따라 해외 봉사활동에 참석한다는 마음으로 온 자매가 있었다. 이 자매는 무신론자였는데, 아웃리치 내내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 자매가 한국에 돌아와서 온누리교회에 4주 차 출석하고 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깨달은 게 많다. 특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더니 아웃리치 현장에서 하나님이 현지인에게 맞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

떠온 하인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 몽골 아웃리치를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정부는 집사
(분당A공동체)

강남A공동체
캄보디아

이번 강남A공동체 캄보디아 아웃리치에는 개인적인 사정과 바쁜 일정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울 것 같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결국 함께하기로 했다. 남편과 아이를 두고 홀로 아웃리치를 떠나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걱정도 있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어린이 사역에 대한 꿈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으로 나아갔다.

항공편 예약부터 준비 모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아웃리치팀 리더들의 헌신으로 순조롭고 은혜롭게 진행됐다. 캄보디아 아웃리치 준비를 위한 첫 모임 때는 팀원들이 조금은 어색했는데, 매일 아침 단체대화방에 올라오는 기도제목과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조금씩 한 마음이 되었다.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겠다는 같은 꿈을 꾸게 되었다.

아웃리치 준비 모임 때마다 권사님들과 여집사님들은 연습 장소가 없어서 땀별 아래서 부채춤을 연습했다. 참가자 모두 축복송 율동과 캄보디아어 합창 그리고 가정 방문 전도(심방) 훈련에 힘썼다.

7월 9일, 드디어 ‘블레싱 캄보디아’ 여정이 시작되었다. 6시간 비행 끝에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했다. 그 순간 140여 년 전 어둡고 힘들었던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떠올랐다. 선교사님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



강남A공동체 캄보디아 아웃리치팀이 ‘올네이션스 스쿨’에서 문화집회를 열었다.

를 맺어 오늘의 선교 한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캄보디아에 ‘올네이션스 스쿨’을 세우고 교육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공동체 출신 목사님과 권사님 부부의 헌신이 거름이 되어서 캄보디아가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했다.

다음 날 아침, ‘올네이션스 스쿨’을 방문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심방할 때 전달할 선물과 간식 바구니를 정성껏 포장했다. 이틀 동안 50여 명의 학생 가정을 심방했고, 전도도 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많은 가정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결심했다. 아웃리치 이후에도 그들이 교회에 출석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마 성령님이 우리의 방문 전부터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던 것 같다.

셋째 날 아침에는 수백 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예배 형식의 문화집회를 개최했다. 축복송과 율동을 시작으로 부채춤, 특송, 캄보디아어 합창 그리고 공동체 담당 목사님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중간에 학생들이 준비

한 찬양과 합주도 있었다. 집회를 마치고 강당을 떠나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선물하며 사랑의 인사를 나눴다.

두란노국제선교회(TIM) 선교사님들이 공동으로 개척하신 ‘Acts29 프놈펜교회(갯까교회)’에도 방문했다. 선교사님들과 교제하고,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온누리교회의 비전인 Acts29가 현실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이 감동했다. 갯까교회가 그 이름처럼,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한다.

돌아보면 아웃리치 첫날 사역지인 올네이션스 스쿨 정문 앞에 섰을 때 갑자기 울컥하며 눈물이 났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캄보디아에서 홀로 학교를 세우고, 십수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음을 전해온 목사님 부부의 믿음과 헌신, 사랑의 수고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웃리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곳의 순수하고 예쁜 아이들의 눈망울이 계속 아른거렸다. 내 마음 한 부분을 캄보디아에 두고 온 것 같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어게인 캄보디아’를 꿈꾸며 그 땅을 다시 밟을 날을 소망한다.



양지영 성도
(강남A 공동체)

블레싱 캄보디아!

마하나임 의료팀
몽골

마하나임 의료팀이 올해 여름 아웃리치로 몽골에 다녀왔다. 사역 주제는 ‘기적의 하루,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었다. 몽골 의료선교에서 받은 은혜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으시다’ (사 55:8-9)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약 4개월 전부터 준비한 약품과 의료기구 등이 중국 국경과 고비사막을 거쳐 두 달 전 몽골에 잘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번 의료선교에는 대학병원의 저명한 내과 교수들과 치과, 한방병원, 정형외과 등 거의 준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진들이 대거 참여했다. 나름 완벽한 의료선교의 장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약 한 달 전 다녀갔던 다른 의료봉사팀이 면허 등의 문제로 이슈가 돼서 몽골 의사 면허가 없이는 진료할 수 없게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7번의 준비 모임과 금식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했다. 기도하는 중에 의료선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증거하는 방법 중 한 가지일 뿐이며, 우리의 길과 생각보다 언제나 크고 높으신 하나님만 신뢰하면 된다고 확신했다. 기도하는데 울란바토르 보건소 의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질병들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급히 전문의 5명이 분야별 강의를 했다. 이 일로 인해 보건소와 선한이웃교회가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



마하나임 의료팀이 선한이웃교회 성도를 진료하고 있다.

하는 예상하지 못했던 수확을 얻었다.

둘째 날, 선한이웃교회에서 드린 예배에서 몽골어로 준비한 특송을 통해 몽골 성도들과 한마음으로 찬양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예배 이후 선한이웃교회 성도들만을 대상으로 예정했던 진료가 성도들의 지인들까지 확장됐다. 다음 날 오전까지 예상했던 20~30명을 훨씬 넘는 총 102명을 진료할 수 있었다. 의사사역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

셋째 날, 선한이웃교회에서 품고 기도하던

전도대상자들의 가정을 4개 조로 나눠 심방했다. 질병과 가난, 세상의 멸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마음으로 몽골 지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삶을 나눴다. 찬양과 의료 상담 등을 통해 한 자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선한이웃교회로 인도하는 귀한 일이 있었다.

넷째 날, 몽골 청소년들과의 농구, K푸드(한식), 투호, 다트, 과자 따먹기 등 다양한 게임, 한복 체험, 타투 등 K문화를 통해 몽골 청소년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다. 마지막에는 다 함께 손을 잡고 몽골어와 한국어로 찬양을 부르며 주안에서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롬 8:28)는 것을 새삼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환자들을 치료하던 의사들의 손길뿐 아니라 떨리는 목소리로 특송 하던 예서, 몽골어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 하던 은찬과 세운, 힘차게 태권도 시범을 하던 지후 등 어린이들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셨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최선을 다했던 모든 팀원과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서울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을 위해 기도해준 나머지 팀원들의 마음 역시 기쁘게 받으셨다. 척박한 몽골 땅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길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셨음을 깨달았다. 의료선교를 마치면서 “너희들이 여기에 있어 줘서 참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들리는 것 같았다.



김주홍 집사
(마하나임 의료팀)

동경온누리교회
청년연합수양회

지난 8월 22~24일, 일본 관동 지역에 있는 비전교회(동경온누리교회, 요코하마온누리교회, 우에다온누리교회) 소속 청년 97명이 동경 오후타마 복음의 집에서 ‘청년연합수양회’를 개최했다. ‘성령의 사랑’을 주제로 모인 청년 연합수양회 오프닝 예배에서 하카타마 미키 목사님(우에다온누리교회)이 말씀을 전하셨다. 총 3번에 걸친 성회에서는 여성민 목사님(전도사역본부 본부장)이 메시지를 선포하셨다. 나는 동경온누리교회 청년 회장으로 그 동안 준비해온 청년연합수양회를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번 청년연합수양회에서 여성민 목사님의 뜨거운 말씀을 들으며 큰 도전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리더십의 회복과 열정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꿈꾸고 행하라”는 그 메시지가 가슴 깊이 남았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목사님과 청년들이 함께 2박3일을 보내면서 느낀 것은 ‘오직 감사’였다. 나를 이번 청년연합수양회를 준비하는 자로 세워주신 성령님이 계속 중보기도를 하게 하셨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임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다. 나는 청년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과정에서 성령님의 크신 임재를 느끼고, 많은 사람의 기도로 청년연합수양회가 진



일본 관동 지역에 있는 비전교회(동경, 요코하마, 우에다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청년연합수양회’를 진행했다.

행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실제로 교회 성도님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한국에도 중보기도팀이 있다고 들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그 기도해 힘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를 이끌었다. 청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다. ‘너무 과한 행동이었나’ 하는 인간적인 생각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흘러간 것 같았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된 것 같아 큰 기쁨을

느꼈다. 처음에는 딱딱하게 굳어있던 청년들의 마음이 성령님의 임재 앞에서 녹아내렸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해 갔다.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목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렸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으리라 믿

는다.

청년연합수양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믿음과 평안을 허락하셨다. 나는 원래 완벽주의자이고, 모든 것을 내가 파악하고 싶은 성향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부분을 팀원들에게 맡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지혜로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자리였다. 동경온누리교회에 최근 청년들이 많이 늘었다. 세 곳의 비전교회가 합동으로 참여한 수양회라 서로 모르는 청년들이 많아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각 운영팀, 팀장, 방장, 참가자 한명 한명이 서로를 도왔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임을 알게 되었다. 이 공동체가 앞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한다.

청년연합수양회를 마치고 돌아온 일상이 진정한 전쟁터라는 것을 알고 있다. 청년연합수양회에서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석재령 자매
(동경온누리교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NGO 더멋진세상&CMN 시온팀
아프리카 모리타니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로 변화

아프리카 모리타니아에 의사도, 의학 관련 종사자도, 의대생도 아닌 내가 의료봉사를 다녀왔다. 사실 모리타니아 아웃리치를 결정하는 데 많은 갈등이 있었다. 한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며 완전히 그분 곁을 떠나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슬람 외에는 종교 활동이 금지된 땅에 교회 소속의 봉사였다. 그러나 “함께 가자”는 엄마의 말을 듣고 생일을 낫선 땅에서 보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봉사하는 게 일거양득처럼 느껴져서 참가를 결정했다. 하지만 아웃리치를 가는 내내 ‘하나님도 참 불평등하십니다. 아프리카는 언제까지 빈곤한 나라입니까? 모두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곳은 침략과 약탈과 가난이 끊이지 않도록 놔두십니까?’ 라고 생각했다.

첫날 사역 오전에 진료를 받으러 온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줬다. 그런데 서로 선물 받았다고 사방에서 물려드는 무질서한 아이들과 어른들을 보면서 속으로 그들을 비하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약간의 선민의식이 생긴 상태로 점심을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오후 사역을 하려는데 갑자기 배가 뒤틀리듯 아팠다. 결국 사역을 하지 못하고 수액을 맞으며 누워있었다. 다른 분들은 더위를 먹어서 아픈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와서 고백하면 그것이 원인이 아닌 것 같다. 조금 괜찮아져서 나가려 하면 다시 배가 아프면서 ‘그런 마음이면 나가지 마. 그런 마음으로 저들에게 무엇을 해주지 마



아웃리치팀이 모리타니아 어린이들에게 울동을 알려주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진료실 천장을 바라보는데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제국주의 역사가 스쳐 지나갔다. 사랑 없이 사람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마음과 생각들은 어디서 온 것인지, 지구가 불평등한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 불평등을 만든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이 마음 깊이 다가왔다.

첫날 사역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 쓰러지

듯 잠이 들었다. 몇 시간이 흘러 새벽에 갑자기 잠에서 깼다. ‘지금 자야 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가 하고 싶어졌다. 눈물이 쏟아지면서 나의 인생을 전부 내맡기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회개기도를 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내 마음이 재건되는 듯한 충만함을 느꼈다. 기도하면서 나를 묶어매던 허무주의의 굴레가 완전히 풀렸다. 이 감정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그 순간 마음이 편해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

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이끌고, 동행하게 하시고,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기도가 끝나고 진정한 평강을 느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그동안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또 드렸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떠오르는 해를 바라 보았다. 남은 아웃리치 동안에는 아픈 곳 없이 사역을 잘 마쳤다. 8월 9일 시작될 예정이었던 아웃리치가 목사님과 시간을 조정하며 한 주가 앞당겨졌다는 것을 한국 돌아오기 전날 들었다. 얼마나 전율이 돋았는지 모른다. 시간이 조정되지 않았다면 엄마가 이번 아웃리치에 올 수 없는 일정이었고, 나도 오지 못했을 것이다. 매번 진심 반, 비아냥 반을 담아서 했던 기도가 생각났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몰라야 할 것은 모르게 하시고, 사랑할 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구별하는 분별의 지혜를 주세요.”

이제는 이 기도를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로 바꾸었다.



양예원 자매
(서빙고온누리교회)

부천온누리교회 JDS
베트남

사랑의 소낙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 그 사랑을 맛보아 알기 위해 JDS 선교 여행을 떠났다.

‘*agape*=AGAPAO=사랑하라’, 헬라어 명사 ‘아가페’를 동사형으로 바꾸면 ‘아가파오’가 된다. 부천온누리교회 JDS 5기 베트남 아웃리치팀이 이 단어를 마음에 품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35절 말씀을 따라 7월 첫날 아웃리치 출발을 알렸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1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마약센터에서 만난 청년들의 눈빛이 웬지 섰다. ‘복의근원교회’에 속한 마약센터 담임 목사님 또한 17년 동안 마약 중독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 마약을 끊고 하나님을 섬기며, 마약 중독자들과 고아들을 돌보고 계셨다. 마약센터에서 만난 한 형제는 마약을 하며 음란하고 진리 없는 일상을 살았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어 지금은 교회 예배 인도자로 사역하고 있다고 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함께 예배드리고, 이어진 위십(SUM) ‘가장 높은 곳에서’를 하면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를 고백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마약이라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우리의 섬김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했다.

사파에서 세 시간가량 떨어져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간 신수어이호마을에는 살아있는



부천온누리교회 JDS 아웃리치팀이 베트남 교회에서 위십을 하고 있다.

복음의 간증이 있었다. 높은 산자락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먹을 게 없어서 대마초를 먹고 살았는데, 라디오로 필리핀의 복음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마을 전체가 복된 소식을 알게 된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바로 그곳에 신수어이호교회가 있다. 주민들이 영혼 구원을 받고, 함께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사명과 서로의 비전을 나누며 ‘기독관광마을’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석 위에 세워진 허우타오교회 또한 높고 험한 길을 올라가야 만날 수 있다. 그곳은 목사님과 성도 17명이 3년 동안 직접 돌을 옮기고, 길을 만들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과 믿음으로 만들어진 그 길을 밟는 여행자들을 위한 그들의 신실함 앞에 숙연해졌다.

‘팀하노이(TIMHANOI)’와 함께 한 베트남 아웃리치의 백미는 베트남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나눈 것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여성 사

업가로서 성공했지만, 예수님을 모르던 한 여성과 만남이었다.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말하던 그녀는 어떤 것에 기대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여성에게 함께 있던 자매님의 간증을 전했다니 복음이 들어갔다. 그 순간 그분의 마음이 요동하며 알고 있던 가치관과 부딪히는 모습과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아웃리치에서 돌아와서도 그 자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드린 주일예배에서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 다정하고 사랑 가득하게 다가오신 나의 친구 예수님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시 119:63)고 말씀하셨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친구가 되었고, 그 분이 모든 답을 허무셨음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사랑의 소낙비를 내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격려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길로 인도하셨다. 친구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지고, 나의 삶과 베트남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한다.



지세나 성도
(부천온누리교회)

맛있는 말씀 해설

“... 므낫세가 여호와를 격노하게 한 그 모든 격노 때문이라”(왕하 23:23~26)

조선 시대 성군(聖君)을 꼽으라면 역사학자들은 세종, 영조, 정조, 성종을 말한다. 이 중에서 세종은 ‘대왕’이라는 칭호가 붙는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분열 왕국 시대 선왕(善王)을 꼽으라면 성서학자들은 남유다의 아사, 여호사밧, 아하시, 웃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아를 말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요시아에게 ‘대왕’이라는 칭호를 주고 싶다. 요시아는 종교개혁에 성공한 왕이기 때문이다. 요시아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게 해서 예배를 회복하고(23절), 우상 숭배의 모든 모양을 쓸어버리는 우상 척결 정책을 단행하며(24절),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했던 문화를 뒤엎어 말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했다(25절).

하지만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요시아의 개혁에도 진노를 거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요시아는 재앙을 안 보고 평안히 무덤에 안장될 것’(왕하 22:20, 대하 34:28)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무리 요시아가 애썼다 할지라도 남유다는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하신다. 므낫세 왕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냈기 때문이다. 12세에 왕위에 등극해서 무려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

치한 므낫세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른다(왕하 21:1~2).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멸하신 모든 민족보다 그 죄악이 더 심하였다’(왕하 21:9, 대하 33:9)고 한다. 모든 민족에는 이방 나라가 대다수인데,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적대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필자는 므낫세만의 잘못이라기보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 <열왕기하> 20장 19절(표준새번역)을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 시대에만 관찮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라를 이끌었다. 대대손손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신앙교육을 하는데 관심이 없었다. ‘비전(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잠 29:18)는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남유다의 멸망은 므낫세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자녀교육 실패’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히스기야는 죽을병에 걸렸지만, 간절한 기도로 15년을 더 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15년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으며, 자기의 안위만 걱정했다. 무엇보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다. 얼마나 오

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 나의 시대에만 평탄하면 된다고 여길 것인가 아니면 후대에도 온전한 신앙이 이어지도록 힘쓸 것인가. 어렸을 때부터의 신앙교육은 세뇌가 아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도록 토대를 형성하는 기본 교육이다. 학업에는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아이에게 전수되지 않는다면, 즉 때를 놓친다면 신앙이 회복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무엇보다 신앙교육은 건강한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게 해서 정치, 경제, 문화, 역사를 온전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기에 매우 중요하다. 신앙 전수에는 희생이 따른다. 후대를 위해 희생하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커리어나 가시적인 성과만 중시하는 문화는 참으로 아쉽다. 시간을 따로 떼어서 신앙 전수에 힘써야 한다. 자녀의 온전한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자신의 신앙이 먼저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자.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여호야

긴 왕이 37년 만에 사면된다(왕하 25:27~30). 바벨론 왕이 에월브로닥으로 바뀌면서 원년에 다른 왕들의 지위보다 여호야킨 왕의 지위를 더 높게 하고, 죄수복을 벗기며(명예 회복), 양식 등을 풍족하게 누리게 된다(물질 회복). 이러한 변화가 왜 일어났을까? 필자는 이를 요시아가 ‘예배 개혁, 말씀 개혁, 우상 타파’를 한 결과라고 본다. 안 후스의 죽음이 무위로 끝난 게 아니라 100년 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실제로 일으켜 ‘안 후스가 환생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듯이, 요시아의 신앙개혁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했지만 회복이 일어난 까닭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록 변화가 더디 올지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각 가정의 신앙형성을 위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해지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힘써야 한다.



이강현 목사
(양재A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 공동체

9월 9~15일

<느헤미야> 5:14~8:18

목상포인트 1

: 지도자에게는 약한 계락을 간파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느헤미야는 끊임 없는 모함과 위협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대적의 술책을 분별했다. 성벽 재건의 큰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분별력과 추진력이 어땠는지 목상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는 이전 총독들과 달랐다. 12년 재임 기간에 형편이 어려운 유다 백성을 생각해 총독의 보수를 받지 않았고, 도리어 백성을 위해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사용했다. 느헤미야의 헌신과 유다 백성의 연합으로 성벽 재건이 완성되어 가자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이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계획한다. 대적의 계락을 간파한 느헤미야는 만나자는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 뇌물을 받은 스마야가 율법을 어기게 하려 할 때도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는다.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마치자 대적과 주위 이방 족속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인해 두려워하며 낙담한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

한 자들을 세워 성을 파수하게 한다.

목상포인트 2: 성전과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직결된다. 그러기에 귀환자 중에 제사장, 레위인, 성전 봉사자 명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공동체의 재건은 많은 이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주역인 귀환자 명단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목상하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모아 계보(족보)대로 기록하게 한다. 처음 돌아온 자들의 계보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잡혀갔다가 귀환한 백성,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 신하의 자손의 명수가 기록되었다. 귀환자 중에는 출신을 확인할 수 없는 이들도 있었는데, 제사장의 경우는 계보에 이름이 없으면 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귀환자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재물을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내어 놓는다.

목상포인트 3: 진정한 영적 부흥은 성벽 재건에 머물지 않고 말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간다.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을 들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우치고 울며 회개한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신앙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목상하자.

▶유다 백성은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한다. 이에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회중 앞에서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준다.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은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며 통곡한다. 지도자들은 이날이 하나님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고 권고하고, 백성은 먹을 것을 나누며 즐거워한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킨다. 절기 7일 동안 에스라는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덟째 날에는 규례에 따라 성회를 연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백성을 위해 헌신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헌신할지 생각해 보고 실행하자.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계락을 간파하고, 흔들림 없이 성벽 재건을 이어 갔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자.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진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 내가 우선시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살피고 실천하자. ▶영적 부흥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다. 하나님 말씀을 주기적으로 듣고 배우는 자리를 나는 언제, 어떻게 갖고 있는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말씀 앞에 늘 겸손하며 진실히 회개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나와 가정을 위해서!

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현재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청년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비전을 위해 기도하다가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명확한 비전을 찾지 못했지만,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고가고 있습니다.

매일 수업과 과제, 공부해야 할 것이 많은데 학업 가운데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단순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어머니와 저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 동생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콘텐츠로 세상에 말하다!

CGN 장기 기획 다큐멘터리 기획안 공모전

CGN에서 장기 기획 다큐멘터리 기획안 공모전 '콘텐츠로 세상에 말하다'를 개최한다. 9월 29일(일)까지 장기 기획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제출하면 된다. 하단 QR코드로 접속해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다음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주제는 선교, 사회 이슈 및 트렌드, 기타(인물 또는 공동체, 사역 등) 등이다. 당선된 기획안은 2026년 CGN 콘텐츠로 제작되어 방영할 예정이다. 상금은 대상 300만 원(1명), 최우수상 100만 원(1명), 우수상 50만 원(2명)이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4명 이내)으로 지원할 수 있다.

문의: 02-796-9800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콘솔라토르싱어즈 찬양음악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후원, 온사랑합창단과 협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후원하는 콘솔라토르싱어즈 찬양음악회가 지난 8월 31일(토)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렸다. 이날 찬양음악회는 소프라노 이솔단장과 단원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온누리교회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온사랑합창단의 찬양도 이어졌다.

콘솔라토르싱어즈는 온누리복지재단 협력 기관이다. 라틴어로 '위로자'라는 뜻이다. 병원, 발달장애인



지난 8월 31일 열린 '콘솔라토르싱어즈 찬양 음악회'.

평생교육센터, 요양원, 군부대 등을 찾아가 음악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있다. 수익금은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에 후원하고 있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시로 쓴 나의 신앙

'신앙고백의 시' 작품 전시회

'신앙고백의 시 작품 전시회' 개막식이 9월 8일(일) 오후 1시 30분 서산온누리교회 3층에서 열린다.

이번 신앙고백의 시 작품 전시회에서는 9월 한 달 동안 김명희 권사(서산온누리교회, 시인)의 시 '예수', '기도', '구원', '성찬', '교회 사

랑', '나를 고치소서', '바다야 잠잠하라' 등 15점을 전시한다.

서산온누리교회에서는 매월 화가, 시인, 작가 등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 홍하영 기자

서빙고, 양재 시니어아카데미 개강

9월 11일부터 서빙고 두란노홀, 양재 드림홀

서빙고와 양재 시니어아카데미가 개강한다. 서빙고 9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두란노홀, 양재 9월 11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50분 드림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서빙고 아이스쿨, 목회행정실, 현

장 접수, 양재 현장 접수하면 된다. 65세 이상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5만 원.

시니어아카데미에서는 강의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문의: 02-3215-3533(서빙고)
02-570-7349(양재)

한국어 선교학교 13기 참가자 모집

9월 21일부터 매주 토 오후 7시 온라인

한국어 선교학교 1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강의한다. 1주차와 10주차는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현장 강의를 한다. 수강신청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다. 회비는 5만 원.

한국어 선교학교는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다. 이주민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10-6652-3596

9월 화요성령집회 'The Church'

9월 화요성령집회 'The Church'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분당에서 열린다.

화요성령집회 'The Church'에서는 9월 10일 최성민 목사 '아웃을

섬기는 교회' (롬 12:9~21), 17일 정한호 목사 '복음을 전하는 교회' (딤후 4:1~8), 24일 이서진 목사 '열방을 향하는 교회' (갈 4:12~20)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참가자 모집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독일편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5년 1월 25일(토)부터 2월 4일(화)까지 11박12일 동안 '루터의 생애'를 테마로 독일 일주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10-4902-1022

서빙고 꿈아이놀이터 영유아 및 교사 모집

서빙고 꿈아이놀이터에서 영유아(24~48개월)와 교사를 모집한다.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1층 레크리에이션실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QR코드
로 하면 된다.



양재 헬로맘 스쿨 참가자 모집

양재 헬로맘 스쿨이 10월 11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성도, 아이를 양육 중인 성도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2-570-7349

어린이 일대일 수료 명단

동반자 | 양육자 동반자 | 양육자

고하은 김유미
권윤재 김태은
김나은 이효진
김서하 김은효
김시우 김정훈
김재원 김기훈
김주원 김태오
김지훈 김신철
김하람 김요셉
김하찬 김한이
신세인 정규선
오현준 오형석
위승우 위성규
윤하영 차현주
정규우 장보원
정서윤 전세진
정준후 장향희
조아인 조득용
조연우 서미순
조하준 조태완
진하임 박상미
하주는 이상은

온라인커뮤니티 2024 하반기 개강

10월 8일부터 매주 화 오후 8시 온라인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이하 온라인커뮤니티)가 2024년 하반기 개강을 한다. 10월 8일(화)부터 12월 3(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우측 QR코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20세 이상 온누리교회 성도 중에서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활동이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온라인 돌봄공동체다. 문의: 카카오톡채널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 홍하영 기자



58기 젊은부부학교 모집

10월 12일부터 매주 토 오후 2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좋은 기회가 있다.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젊은부부학교'에 참가하는 것이다. 젊은부부학교는 서빙고와 부천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28만 원(10

월 5일까지 입금하면 25만 원)이다. 참가신청은 카카오톡에서 '온누리 젊은부부학교'를 검색한 다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문의: 남편(010-8922-1826)
아내(010-5237-7237)

통일선교학교 2기 수강생 모집

10월 5일부터 매주 토 오후 7시 30분 온라인

통일위원회 통일선교팀에서 '통일선교학교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이나 문자메시지(010-2951-1322)로 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로 등록

할 때는 이름, 성별, 소속, 출생년도, 교재 수령 주소를 꼭 기록해야 한다. 회비는 교재 포함 3만 원(아웃리치 2만원 별도). 통일선교학교에서는 통일 관련 주제 강의, 현장 아웃리치, 토크쇼 등이 이어진다.

문의: 010-2951-1322

NGO 더멋진세상, 남수단 과케마에 교회 건축

NGO 더멋진세상이 후원자와 협력해서 아프리카 남수단공화국 과케마에 아프리카 토착교회(AIC, African Initiated Church)를 건축하고, 입당예배를 9월 8일 드린다.

남수단 외곽 과케마에 성도들은 나무막대기모만 엮어 만든 교회에

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150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규모의 안전한 교회 건물을 건축했다. 새로 건축한 교회 건물은 과케마에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 여성센터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권사칼럼

부르심에 순종하는 기회!

박명희 권사
(양재 영아부)

2016년 여름, 영아부 여름캠프 준비와 세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영아부 해외 아웃리치 준비로 분주했다. 그런데 영아부 여름캠프를 일주일 앞두고 급성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그해 나의 여름 사역이 없어졌다.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 영아부와 공동체 등 많은 분의 기도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건강도 조금씩 회복했다. 2년 뒤인 2018년, 다시 영아부 해외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기로 했던 룬복에 지진이 나면서 해외 아웃리치 계획이 또 무산되고 말았다. 그 뒤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져 모든 여름 사역이 중단됐다. 번번이 여름 사역이 무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름 사역에 대한 갈증이 더욱 커져만 갔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해외 아웃리치가 다시 열리며 올해 다시 영아부 해외 아웃리치를 준비하게 되었다. 1명의 교역자와 7명의 교사, 2명의 교사 자녀가 ‘몽골밝은미래학교’로 아웃리치를 떠나게 됐다. 다시 여름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우리 가족은 7월부터 8월까지 온 가족이 여름 사역에 빠져있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7월, 나는 영아부 여름캠프와 흥천 국내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그리고 8월 온 가족이 한 주씩 뿔뿔이 흩어져 하늘길을 날아 해외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8월 첫 주에는 둘째 딸이 고등부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둘째 주는 남편이 공동체에서 캄보디아로, 셋째 주는 내가 영아부에서 몽골 아웃리치를 가게 되었다. 이렇게 한 주에 몇 번씩 인천공항을 오가며 아웃리치를

준비했는데 출발 열흘 전쯤부터 시작된 감기가 점점 심해져 견디기 힘들어졌다. 마음속에 ‘또 못 가는거 아니야?’라는 걱정과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하나님께 “저 이번 아웃리치 꼭 가고 싶어요”라고 기도하며 더 열심히 찾아보고, 더 열심히 준비했다.

영아부 몽골 아웃리치는 4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미술 활동, 체육대회, 대그룹 활동, 식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캠프였다. 마지막 날에는 부모님 초청 식사 준비를 해야 하고, 학교 환경판을 꾸며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도 준비해야 했다. 성인 7명이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듯한 일정이었다. 몽골에 도착해서 첫날 일정을 소화하고 마무리 모임까지 하고는 바로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영아부에 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기도제목이 올라갔다. 다음날 기도의 힘으로 일어난 나는 거짓말처럼 컨디션을 회복했고, 남은 사역들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다.

어려워 보이던 사역들을 해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이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달란트가 돋보였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캠프를 마치고 학교를 떠나지 못하던 모습도, 메시지를 들은 부모님이 “사실 과거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다”며 다시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도 감사한 열매다. 적절한 타이밍에 공동체를 통해 채워주셨던 재정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

나에게 이번 아웃리치는 해마다 있는 여름 사역이 아니었다.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였다. 몽골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치는 아웃리치였는데, 건강히 또 즐거이 사역을 잘 마치고 올 수 있어서 더욱 감사했다. 후임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이을 선교사 양성을 위한 기도로 아웃리치를 계속 이어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즐거운 추억 ‘달란트 잔치’

안수현 선교사
(TP 선교사)

NGO 더멋진세상 말라위지부에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역도 있는데, 저는 영유아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말라위 물랑가교회에서 교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말라위지부 담당 선교사님이 교회학교 시절 즐거운 추억이었던 ‘달란트 잔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곳 아이들에게도 교회학교 시절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물랑가교회 교회학교는 여섯 명의 교사가 2세에서 18세까지 약 200명 정도의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도 크고, 교사 대비 아이들이 많아서 달란트 잔치를 준비하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에 더해 언어 소통도 쉽지 않은데, 행사를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 행사를 이 해시킬 수 있을지도 고민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달란트 잔치를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달란트를 받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설명을 들었는데도 표정을 보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선생님이 나눠준 가방에 달란트를 잘 모아두라는 그 말만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현지어를 잘할 줄 몰라서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말씀 암송도 하면서 아이들이 차곡차곡 달란트를 모았습니다.

달란트 잔치는 제가 말라위에 와서 처음 말

은 행사였고, NGO 더멋진세상 말라위지부와 현지 교회가 처음 협력한 행사였습니다. 덩치 않은 날씨, 원활한 준비와 진행 덕분에 달란트 잔치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순조롭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달란트 잔치 날, 평소보다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모였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아이들도 달란트 잔치 소문을 듣고 1~2주 전부터 교회에 나왔습니다. 비록 적은 달란트지만 그것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봄비는 코너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물건을 판매하는 아이들의 분위기를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아이들을 살피던 현지 직원들이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어했고, 좋아했다”고 피드백했습니다. 행사 날이 토요일이어서 참여하지 못했던 직원들이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다음 달란트 잔치 때는 꼭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의 바람처럼 아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준 것 같아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달란트 잔치를 준비하면서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기도제목은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 만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 있으면 훗날 어려움이 생겨 잠시 교회를 떠나더라도 그 기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가장 순수한 시절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겨나갈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교회학교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었던 제 기도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제는 달란트 잔치라는 행사가 수단이 되어서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암송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에세이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범람하는 강물을 건너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을 걸어갔다.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까닭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구원의 사건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 백성에게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12개의 돌을 가져올 것”을 지시했다. 다음세대에 게 중요한 기념비로 삼고 싶었기 때문이다.

9월 8일은 대전온누리교회가 창립한 지 21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다. 지난해 대전온

누리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설교에서 이재훈 위임목사님이 ‘대전온누리교회의 선교적 가치’를 설명하셨다. 그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담당목사로서 아심 차게 실천한 게 하나 있다. 그것은 지난 20년 동안 대전온누리교회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보는 것이었다. 여태껏 7명의 담당목사님이 대전온누리교회를 섬겨왔지만, 많은 교역자와 성도들이 바뀌어 역사와 정체성이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1년 동안 잃어버린 자료들을 수집하고, 역사를 찾고 추려서 마침내 대전온누리교회 20년 역사를 총정리할 수 있었다. 동시에 앞으로 역사를 빅데이터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후손들에게 길갈의 열두 돌처럼 남겨주고 싶었다.

담당목사로 사역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이 사역은 많이 하는데 기념일만 되면 역사적 자료와 내용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현재 캠퍼스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수고

가 아니라 많은 성도의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다음세대에게 잘 전달하고 교육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지난해 9월부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과 역사와 자료들을 찾고, 모으기 시작했다. 대전온누리교회 창립 21주년이 되고 보니 더욱 의미가 있었다.

20년을 갈무리해 보니 라준석 목사의 예배 열정, 조영진 목사의 심방 목회, 신도배 목사의 겸손과 섬김의 영성, 안광복 목사의 말씀 목회, 윤길중 목사의 차세대 부흥, 박태영 목사의 체계적 양육 시스템 등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거 역사의 토대 위에 이재훈 위임목사님이 주신 선교적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품고, 더 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최근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대전온누리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다. 자발적으로 전도사역팀이 만들어지고, 성도들이 아웃리치(해외 10곳, 국내 20곳 이상)에서 뜨겁게 사역했다. 게다가 기도 중에 ‘복음전도트럭’을 만들어 방방곡곡을 다니며 전도하는 교회의 비전까지 보여주셨다.

대전온누리교회 창립 21주년에 새롭게 시작할 ‘복음전도트럭’ 사역은 앞으로 캠퍼스 사역, 농어촌교회, 지역교회, 사회선교 등에서 전도 기폭제가 될 것이다.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교회(복음전도트럭)를 만들어 성령님과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갈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전온누리교회 창립 21주년에 주신 〈여호수아〉 말씀의 의미가 그 어느 해보다 크다(수 4:20-22).

길갈의 열두 돌처럼 기성세대뿐 아니라 다음세대에게 대전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로 영원히 간직되었으면 좋겠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분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전 7:20 비전홀

화요일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전 6:30 분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신앙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신동아 쇼펍센터 3층(302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010-5766-446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청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시온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한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 / 러시아어
예배 12:00 신동아 2층 믿음홀 / 몽골어예
배 14:00 선교관 101호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달 첫 주만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3:00 온누리청소년문화
센터 4층 강의실1

인천 온누리M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
어예배 14: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년부 12:30 302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팡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
화 예꿈 11:00 지하 Dream Kids Room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파워
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
팡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1:00 102호

남양주M센터
네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4호 / ANEWS
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호 / 힌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3:00 306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분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
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팔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를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홀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체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CMN 라파팀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진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모집: 콘텐츠팀 웹/앱 기획자 1명
형태: 정규직(수습 및 시용기간 3개월),
주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본사)
마감: 9월 8일(주일)
접수: www.duranno.com/recruit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쁨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
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56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비전홀B
문의: 010-6422-8376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CMN 시온팀 의료진 모집
모집: 치과(사역 시작 9월)
내용: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균 팀장(010-3388-5331)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1, 3주 주
일 연습은 10월부터 재개)
장소: 서빙고 온누리청소년수련관 청소
년프로그램실 II (3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김미현 010-8285-6435

CMN 마노아팀 의료진 모집
일시: 10월, 11월 셋째 주일 오후
*10월 20일 동두천 아프리카예배
*11월 17일 평택 인도네시아예배
분야: 산부인과 진료(여의사) 1명
문의: 류기선 팀장(010-2468-2755, 문
자 먼저 연락)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5부 7:00(온라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
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아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
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
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분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분당 / 6:00 세종교육관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
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
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
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15.3521

토요가족예배 10:30 B2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09:00 B2 분당 / 2부 11:30 B2
분당 / 3부(대학청년) 16:00 B2 분당 행복한하나예
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외국어예배 중국어예배 14:00 B1 소예배실 / 힌디
어예배 토요일 19:00 남양주M센터 301호 / 네팔어예
배 토요일 19:00 남양주M센터 301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분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3F 꿈아이홀 / 유치부
11:30 3F 꿈이툼홀 / 유년부 11:30 2F 드림홀 / 초등
부 11:30 4F 비전홀 / 중등부 11:30 교육관 3F 믿음
홀 / 고등부 11:30 교육관 3F 소망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
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
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텐
젤라홀 / 초등부 11:30 길보튼홀 / 중등부·고등
부 11:30 박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도세홀/ 금요
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2부 11:3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14:30 백향목홀(3층), 꿈팡(초등부)
11:30 알렐루(2층), 꿈팡(유년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텐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분당 / 2부 11:25 분당 / 3부 14:05 분당

대학청년(주일) 16:00 분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분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
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
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분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대학청년 16: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
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분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분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분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분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분당

새벽예배 오전 6:20 분당

CGN 장기 기획 다큐멘터리 기획안 공모전

콘텐츠로 세상에 말하다!

양식 다운로드
및 신청하기

지원 기간

2024.9.2 MON

-

2024.9.29 SUN

(24:00까지)

공모 주제

선교 / 사회 이슈 & 트렌드 /

기타 (인물 또는 공동체, 사역 등)

※ 2026년 방송 예정

상 금

대상 300만원 (1명)

최우수상 100만원 (1명)

우수상 50만원 (2명)

지원 자격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4인 이내) 지원가능

문 의

02) 796-9800

CGN fondant